

“BTS에 분풀이”...비난의 덩어리 걸린 일본

- 美 CNN

CNN “원자폭탄 셔츠 분노 풀고 있어”
美 빌보드 “정치·문화적 배경에 뿌리”
BBC “경제징용피해자 배상 보복성”
비난 화살속 ‘전범국’ 알리는 결과도



그들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계획하고 있던 방송 프로그램 일정이 연이어 취소됐다. 얼마 전 멤버 지민이 일본 셔츠의 디자인을 문제 삼고 있다. 한 일 감정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둘러싸고 한·일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하기로 한 일본 음악 프로그램 측에서 잇따라 “출연 취소” 통보를 하자, 각국의 팬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갑작스러운 방탄소년단의 방송 취소 사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배경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일본 지상파 TV아사히 ‘뮤직스테이션’ 측은 방탄소년단 출연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한데 이어 12월 말 방송예정인 같은 방송사 ‘뮤직스테이션 슈퍼라이브’도 방탄소년단의 출연을 검토하다가 백지화했다. 12월 방송예정인 방탄소년단의 출연 논의를 진행 중이던 각 프로그램 측에서도 모두 출연 취소를 결정했다. NHK는 12월31일 방송하는

‘홍백가합전’에 방탄소년단의 첫 출연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류했고, 같은 달 5일과 12일 방송하는 후지TV ‘FNS가요제’ 측에서도 취소를 했다. 각 방송사 측의 이 같은 취소 결정은 한 멤버가 입은 ‘셔츠 디자인’ 때문이다.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는 게 이유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룹이라 ‘견제’의 의미로 풀이된다. 문제의 ‘셔츠 디자인’은 멤버 지민이 지난해 한 팬에게 선물 받아 입은 옷으로 1945년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원자 폭탄이 터지는 장면의 흑백사진과 함께 ‘애국심’, ‘우리의 역사’, ‘해방’, ‘코리아’ 등의 영문 문구가

써 있다. 지민뿐만 아니라 RM이 2013년 광복절을 맞아 트위터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투사 분들께 감사하다. 대한독립만세”라고 글을 올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멤버들이 티셔츠를 입고 글을 올린 지 1년이 지난 후 뒤늦게 논란이 불거졌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룹에게 출연 하루 전 취소 통보를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도 여파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BTS의 방송 출연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일”이라며 “민간 교류에 자주 정치적

жат대를 갖다대는 것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역시 “일본의 자기중심적인 역사인식과 편협한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미국 빌보드를 비롯해 CNN, BBC, AFP 등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한일 양국의 오래된 역사,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도했다. 빌보드는 “‘티셔츠 논란’은 양국의 오랜 정치적, 문화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티셔츠 문제가 방송 취소의 유일한 이유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원자폭탄 티셔츠의 분노를 BTS에게 풀고 있다”고 보도했고, BBC는 “최근 한일 관계가 더 진장됐다”며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 판결을 거론하며 사태가 커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방탄소년단은 11일 일본으로 건너가 13일부터 예정된 일본 돗투어를 진행한다. 일단 공연 입장권이 예매를 시작하고 일찌감치 매진된 만큼 공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BTS ‘다큐 영화’ 15일 개봉...전세계가 벌써 뜨겁다

2017년 월드투어 실황담은 음악 다큐
예매량 11만장 ↑...전체 예매율 1위

지금 극장에서 스크린 스타보다 세계적인 뮤지션을 더 자주 만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케이팝을 대표하는 뮤지션의 이야기가 잇따라 영화로 만들어진 덕분이다. 록밴드 퀸의 이야기와 이들의 솔한 명곡

으로 채운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가 음악 영화 열풍에 불을 지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2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는 작품 자체도 화제이지만 퀸의 노래들을 향한 새로운 팬덤까지 만들고 있다. 앞서 10월9일 개봉한 또 다른 음악영화 ‘스타 이즈 본’ 역시 10일과 11일에도 100여개의 상영관을 확보한 상태에서 꾸준한 관객 동원 속에 장기 흥행을 이고 있다.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주연한 영화는 무명 여가수가 록스타와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재능을 키워가는 이야기. 135분 상영 시간 동안 레이디 가가의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개봉 한 달이 지나도록 장기 상영을 이으면서 50만 관객 동원에 다다랐다. 전설의 록밴드와 최고 팝스타에 이어 이번에는 전 세계 음악팬을 사로잡은 방탄소년단이 나선다. 19개 도시에서 40회의 공연으로 55만석을 채운 방탄소년단의 2017년

월드투어 실황을 담은 음악다큐멘터리 ‘번 더 스테이지:더 무비’가 15일 개봉한다. ‘아미’의 움직임은 이번에도 발 빠르게 나타난다. 그동안 케이팝그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간간히 개봉했지만 ‘번 더 스테이지’의 초반 반응은 이전과 비교해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다. OGV 단독개봉으로 인해 적은 수의 상영관이 집중 배치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11일 오후 5시 현재 예매량이 11만장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 예매로 판매된 전체 영화티켓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량이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해시태그 킷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수지 미소’

가수 겸 연기자 수지가 팬들에게 깜찍한 매력으로 어필했다. 수지는 “수위티(수지의 팬) 하나 수지 하나”라며 초콜릿 막대 과자를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혼자만 먹기 아쉬웠는지 팬들을 챙기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마음만큼 미모도 빛났다. 긴 웨이브의 헤어스타일과 핑크빛 립스틱으로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팬들은 “누나의 미모는 언제나 정답” “드라마 컴백 기다리고 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수지 #너하나나하나 #사이좋게

편집 | 김청초 기자 minigram@donga.com

연예현장.jpg

블랙핑크, 데뷔 2년만에 첫 단독콘서트

“우리가 대세!”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2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열고 ‘대세 걸그룹’을 입증했다. 이들은 10·11일 이틀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인 유어 에리어’에서 2만 관객을 동원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이들은 히트곡 ‘불장난’, ‘마지막처럼’, ‘뚜두뚜두’ 등을 비롯해 각 멤버들의 솔로 무대를 화려하게 꾸렸다. 12일 솔로 첫 주자로 나서는 제니는 이날 타이틀곡 ‘솔로’를 미리 공개해 팬들을 열광시키기도 했다. 블랙핑크는 내년 1월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동남아 투어 공연을 벌인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1989 Georgia
델리아메리칸만의 차별성

SINCE 1989.

미국라이선스의 정통수제버거 브랜드

성공창업 | 전국 가맹점 모집

합리적인 창업비용

전문적인 교육/컨설팅

가맹점 개설절차 (Open Process)

가맹문의 1670-0755

[성공창업] [입증변경] [낮은 가맹비] [높은 수익률]
컨설팅에서 매장운영, 교육까지 섬세하게 하나하나 도와드리겠습니다.

www.deliamerican.com

자세한 사항은 델리아메리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델리아메리칸은 상생운동을 철칙으로 가맹점주, 직원, 고객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89년 미국 조지아에서 시작된 미국정통 수제버거 브랜드인 델리아메리칸은 2014년 한국에 진출하여 서울 대치동에 본사사무실, 교육시설, 전국 물류거점과 4년간에 걸쳐 가맹점 준비작업 및 매장운영을 통해 음식의 맛을 실현하였고 국내 여러 고객층을 통해 미국 정통버거의 맛을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메뉴출시와 마케팅으로 가맹점주님과 함께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동 912-12 호야빌딩 2층
교육장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동 912-12 호야빌딩 3층
OFFICE : 02-555-4855 FAX : 02-555-4883

License agreement 2014. 03 Georgia, USA Deli American Franchise Guide